

대화적 자아와 내러티브: C. S. 퍼스의 사랑 개념을 중심으로

이윤희(한국외대)

“Your neighbors are, in a measure, yourself and in far greater measure than, without deep studies in psychology, you would believe.”
-C. S. Peirce

I. 들어가며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몸인가, 아니면 뇌인가? 또는 기억이나 성격의 연속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혹은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물질적인 것인가? 정신적인 것인가? 아니면 둘의 혼합인가? 매사추세츠 대학의 베이커 교수는 개인을 일인칭 관점으로 부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이 같은 견해는 개인은 몸과 뇌가 아니고, 그렇다고 기억과 성격의 상태가 아닌 특정한 관점에서 개인이 규정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인칭의 견해도, 베이커 교수 자신도 인정하듯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관점이다(Baker 2013: 1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인칭 관점은 개인적 실존이 규정되고, 정보적이므로 개인이 무개인적(nonpersonal)인 어떤 것으로 환원되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개인적 존재가 규정되고 정보적이라고 보는 기본적인 견해는 개인을 비개인적(impersonal)으로, 순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체성 문제를 이해하는 다른 방법은 개인적 실존으로서의 일인칭 내가 포함하고 있는 순환적이지 않으면서도 정보적이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개성(personality)을 형성하는 자아(self)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즉 규정되는 개인의 실존과 규정하는 관계를 언어라는 외부의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근거가 되는 변하는 요소와 정보로 규정하는 변하지 않는 요소와의 대립적인 긴장관계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 즉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정체성은 몸, 뇌, 기억과 성격의 상태가 연결되어 내가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개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개인적(impersonal)인 개성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의 실존과 동의어가 아니며, 오히려 자아형성의 진화 내러티브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를 고찰하는 것은 물질적 존재 속에 체현된 자아를 탐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기를 서술하는 내레이션 과정을 통해 서술적 자아(narrative self)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층위에서의 자아들이 대화적 관계를 통해 규정되며 또한 규정하는 자아의 진화에 관심을 갖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충만한 주의력¹⁾과 사랑이 자아발전의 소통적 매개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철학자, 찰스 S. 퍼스 (1839-1914)의 자아²⁾ 개념을 토대로 얌의 주체로서 나(I)와 얌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me)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랑의 매개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대화적 상상력에 기반하여 살펴 볼 것이다(퍼스 CP 6.156-157).

자아-내러티브는 말하는 주체(a speaking subject)인 내가 말의 대상(the subject of speaking)인 나 자신(me)을 향한 욕망의 움직임과 사랑의 방법을 통해 알아가는 주체인 나(I)와 알려지는 대상³⁾인 나 자신(me)의 대화적 과정을 재현한다. 이 때 나 자신(me)은 타자인 너(You)로 간주되며, 너에 대한 사랑은 따라서 자애(self-love)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애는 공동체에서 주는 사랑, 아가페로 진화한다(이 과정은 뒤에서 논의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주체인 나와 너 속에서 발견한 나 자신(me)은 서로를 규정하며,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연결된다. 그러므로 내가 타자로서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너와의 관계를 통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아-내러티브의 개념을 세 가지 특성으로 기술한다. 첫째, 자아의 개념은 언어적으로 구성되며, 둘째, 사회적 자아의 진화에 관한 것이며, 셋째, 역사 내러티브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된다(히치맨과 히치맨 2001: 163 참고). 자아가 언어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을 기호학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나(I) 라는 표현은 지표기호로 대상인 나 자신(me)에 의해 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나 자신(me)에 의해 규정되는 지표기호 나(I)는 사회적 유기체에서 순전한 세포(mere cell)로, 사회적 자아의 성격을 띤다(퍼스 CP⁴⁾ 1.647). 이같이 사회적 자아는 유기체로서 자기(ego)가 언어의 시스템을 통해 나(I)라는 기호로 재현됨으로써 미래적 자아로 진화하는 시간의 내러티브를 수반한다. 이러한 자아-내러티브는 단순한 생물학적 진화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즉 하나의 아이디어(an idea)가 일관성(consistency)을 획득하며 보편성을 갖는 자아로 발전하는, 개인의 역사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상징시스템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적 자아와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자아는 나(I) 라는 기호적 자아의 개념을 전제로 서로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자아-내러티브 개념은 내부 지향적인 자아의 스토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외

-
- 1) 주의력(attentioness)은 시몬 베유, 피테, 벤야민 등을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이 주목한 개념이다. 벤야민이 지적하듯이 피테는 주의력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품성으로 여겼다. 벤야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습관과 고통을 짝 개념으로 주의력을 설명한다. 각각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주의력을 보완한다. 우선 주의력은 습관과 긴장관계에 놓이는 데, 주의력이 너무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하지만, 습관이 경직되면 주의력이 사라진다고 본다. 하지만 꿈 속에서는 일상적 습관의 단편들이 왜곡되어 나타남으로 주의력이 회복된다. 한편 최고의 주의력이 고통을 통해 발산되며 습관을 발생시킨다(벤야민 2009:193-194). 동일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사랑과 자발적 의지를 짝 개념으로 하는 주의력이 대화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다른 말로하면, 본 논문은 C. S. 퍼스의 진화적인 사랑(evolutionary love)의 개념을 토대로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기호적 자아의 진화과정에 주목한다.
 - 2) 유기체로서의 대상이 아닌 언어, 즉 기호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자아로, 형이상학적 자아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퍼스에게 인간은 기호, 엄밀히 말하면 사고기호(thought-sign), 혹은 말(a word)로서 정의된다(퍼스 CP 5.313-5.314).
 - 3) 윌리엄 제임스에 의하면 “I” 는 알아가는 자아 혹은 주체로서의 자아와 같고, “ME”는 알려지는 자아 혹은 대상으로서의 자아와 같다. *Handbook of Dialogical Self Theory* (Kindle Locations 283-284).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2012.
 - 4) CP 는 퍼스 선집(Collected Papers)를 지칭하며, 숫자(1. 647)는 차례로 권수와 단락을 가리킨다.

부 지향적인 이타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자아의 발견이 타자를 향한 관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며, 진화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한 공동체적이다.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한 변화가 우주적인 진화로 이어지는 것은 자아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의 법에 부합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의 경험은 메타의식으로, 사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영역을 연결하는 무경계의 의식이자 동시에 새로운 경계를 창조하는 진화의 의식이다. 이같은 자기 통제적 행위는 합리적 자아가 주의력과 정서적, 자발적 행동을 매개로 시간, 공간적으로 타자와 연결되며, 나와 타자가 경계가 없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우주적인 진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아-내러티브에서는 개인, 사회, 공동체의 서로 다른 영역이 연결되어 기술된다. 세 영역에서의 자아, 즉 사적, 사회적, 보편적 자아 간을 연결하는 법칙은 사랑의 논리이다⁵⁾. 따라서 개인, 사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사랑의 논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기호적 자아와 퍼스의 사랑 개념을 살펴보고, 뒤이어 대화적 관계가 어떻게 자아-내러티브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지에 관해 논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진화하는 퍼스의 우주론을 기반으로 자아와 우주의 공동 진화(co-evolution)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사랑의 에너지가 이웃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II. 나는 누구인가?

자아의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자아인식(self-consciousness)과 개인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이다’(I am who)라는 평서문의 변형이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계사(be 동사)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동일성의 관계를 재현한다. 즉 주어와 보어는 각각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며 연결된다. 따라서 누구who 자리에는 선생, 학생, 엄마, 동생, 준희, 크다, 작다, 예쁘다, 행복하다 등 지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나 형용사로 대체될 수 있다. 이 때 주어가 생략된 서술어인 명사나 형용사는 개념적 이미지로 의미화가 되어있다. 서술어가 주어와 연결되기 전 까지 그러한 개념은 규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이미지’로만 존재한다. 이때 ‘나’라는 주어는 지표로서 실제 대상을 가리킨다. 즉 말하는 화자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유기체인 자기(ego)는 ‘나’ (I)라고 발화하는 순간 앞의 주체로 상징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하다” 혹은 “나는---이다”를 통해 나를 인식한다. 언어가 나를 규정하는 언어적 사실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발언을 통해, 즉 언어를 매개로, 자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며 자아의 개념을 얻는다.

자신을 ‘나’(I)로 기호화하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다른 사람의 증언(testimony)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자아를 의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퍼스는 아이의 난로경험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가령, 난로가 뜨거우니 만지지 말라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지는 경험을

5) 퍼스는 본능과 정서(sentiment)가 합리적인 자기통제(self-control)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마침내 추론이 정서에 종속된다고 공언한다(퍼스 CP1.673). 이는 논리가 이타주의(altruism)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서를 요구한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후크웨이 2002: 225). 사변이 지적하듯이 퍼스에게 정서의 가장 중요한 예는 사랑 혹은 아가페(agape)이며, 이는 감정(emotion)과 구별되는 감정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방법이다(사변 1981:331). 이런 점에서 논리적 정서로서 사랑은 자아의 세 영역, 즉 본능적, 감정적, 합리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하여 아이는 자신의 무지와 오류를 자각하게 되는 순간에 이르는 데, 퍼스는 이를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퍼스 CP 5.233; 5.235; 5.317).

자아에 대한 의식은 언어 혹은 타인의 증언(testimony)을 매개로 모델링이 된다. 다른 말로하면,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중재된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언어를 중재 수단으로 하던지 증언을 매개로 하던지, 자아에 대한 의식은 나의 느낌이 외부의 느낌과 비교될 때 생기는 이중의 의식(double consciousness)을 통해 이루어진다(퍼스 EP 2:154).

이중의 의식은 주어와 서술어가 다른 영역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서술어는 개념화된 사회적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어인 나는 서술어를 통해 규정되는 사회적인 자아를 인식한다. 요컨대 ‘나는 선생이다’에서 ‘선생’이라는 말은 언어 공동체에서 약속된 의미로 소통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아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며, 따라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공동체의 사고를 재현한 서술어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사고기호(thought-sign)가 된다. 그러므로 사고는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한다. 퍼스를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몸이 움직임 안에 있고 움직임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고 안에 있는 것이지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퍼스 CP 5.289 n.1). 따라서 사고기호, 즉 기호 자체는 사회적이며 일반성에 근거한다.

퍼스가 주장하는 개인의 개념은 일종의 아이디어의 조직이거나 연결로 “습관의 패턴”(CP 6.228), 혹은 일반적 아이디어로 인간과 동의어는 아니다(퍼스 CP 6.155; 머피1993: 343). 퍼스는 개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기술한다. “[...]실제로 개인(a person)은 별의 무리(a cluster of stars)와 같은 것으로서 육안으로 볼 때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과학적인 심리학의 망원경으로 유심히 관찰하면 한편으로는 그 별 자체가 다수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물질과 절대적인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R 403, 1894)⁶⁾. 이런 측면에서 퍼스가 주장하는 개인의 개념은 사적영역에 속하면서도 상징으로서 공동체의 개념을 포함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퍼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개인의 개념을 살아있는 느낌으로서 아이디어(feeling-idea)에 대한 사랑과 연결하며 이에 대한 사랑을 창조적인 사랑(creative love)이라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person)과 개체(individual), 정신(mind)과 의식(consciousness)의 구별은 중요하다. 퍼스는 심리학자들이 정신을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이 둘은 다른 것이다. 의식은 단지 느낌이고, 정신은 두 느낌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사물로 설명된다. 기호로서의 인간은 해석체(interpretant)로서의 사고 기호(thought-sign)이자 동시에 개인은 말(a person is a word)로서 인식된다. 이 때 의식의 유무에 따라 개인과 말이 구별된다. 개인은 느낌을 갖는 살아있는 말이고, 말은 일반성을 통해 존재하는 부동의 정신(effete mind)이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로서의 개인은 살아있는 느낌이며 이는 가능성의 자질을 갖는 창조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 안에 있는 느낌으로서 아이디어를 인식하는 것은 사랑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충만한 주의력과 자발적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자아 인식의 시발점은 개인적 차원에서 습관의 패턴으로서의 느낌인 아이디어의 인식에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대화적 관계를 통해 그러한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성장한다. 이 때 정신의 법⁷⁾

6) R 403으로 구분되는 퍼스의 필사본으로 앙드레 드 티엔느의 논문, “The Sign in Person” (*Cognitio* (2/2002))에서 인용되었다.

7) 퍼스가 *모니스트* *The Monist*에 기고한 형이상학에 관한 논문 시리즈 중 하나인 “정신의 법” *The Law of*

은 아이디어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연속성(continuity)은 자아-내러티브의 형식을 통해 다음 장에서 기술될 것이다.

요약하면 일반적 아이디어로서의 개인이 대화적 관계를 통해 일관성(consistency)을 갖게 되는 과정이 정신의 법칙을 통해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공간적 연속성을 통한 이웃사랑을 통해 성장, 발전되며,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자아 사랑으로 나타난다. 나와 이웃은 경계가 없으며, 둘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분배의 사랑과 정의로 우주의 진화에 참여한다. 이런 점에서 나와 세계의 변화는 생물학적이 아닌 형이상학적 개념의 진화론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자아-내러티브는 정신의 법칙을 따라 나라는 실체가 자아라는 의미로 재현되는 과정이다. 가령, 대화적 자아, 사회적 자아, 상징적 자아, 미래적 자아, 사적 자아 등의 자아 개념은 유기체인 내가 규정되는 사고 기호이자 말(a word)로서 개인의 정체성의 한 모습이다. 즉 나는 일관성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III. 이런 사랑도 있다.

사랑이란 주제만큼 흔한 것도 없지만 동시에 사랑만큼 신비로운 대상도 없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나름대로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다양한 사랑의 개념들이 존재한다.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사회, 개인의 삶 속에서 사랑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랑의 개념에 또 다른 개념을 보태는 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인간의 진화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SBS TV 인문학 강좌 시리즈 ‘나는 누구인가’에서 고미숙은 사랑을 사계절에 비유한다⁸⁾. 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편 멜로드라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며 진정한 연애를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사랑은 여러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갈망의 형태를 보여준다. 사랑이 변하는 것도 옳은 말이고 변하지 않는 것도 옳은 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내부 세계가 투영된 외부세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아에 대한 의식이 기호의 중재를 통해 알려진다는 기호적 자아와 그 맥을 같이한다.

우리의 감각과 감정은 사계절처럼 변화하며 몸과 마음을 통해 사랑을 경험한다. 한편 우리의 정신은 멜로드라마의 사랑처럼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꿈꾼다.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그러한 사랑을 갈망한다. 이처럼 사랑은 쌍곡선을 그리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이에서 긴장을 통해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고 자유롭게 만든다. 즉 내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속하는 사랑에 머물면 그러한 긴장은 나를 진화하게 만드는 상징이 된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속에 존재하는 원칙이다. 그러한 사랑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우리 사이에 존재하며 우리를 움직이며 진화시키는 외부적인 힘이자 내부적인 에너지이다. 사랑은 사계절의 변화처럼 반복하는 원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연속성을 통해 움직이는 선의 형태이기도 하다.

Mind(1892)(EP 1: 섹션 23)를 참고. 이 논문은 마지막 5번째 논문인 “진화적인 사랑” Evolutionary Love(1893)(EP 1: 섹션 25)과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과 진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인문학강의 [Who am I] - 고미숙: 우리시대 인문학의 세 가지 키워드, 돈, 몸, 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CaG9HCVTVPa> (검색일: 2015. 4.25)

즉 변화와 불변은 서로 엮이면서 공간과 시간의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사계절처럼 변화하면서도 멜로드라마의 변하지 않는 사랑처럼, 변화와 불변의 역설적인 두 모습을 가진다.

이러한 사랑의 두 모습은 마치 인간의 사랑과 신의 사랑의 자질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변하는 사랑은 현실세계에서의 인간 사이의 사랑을 재현한다면, 변하지 않는 사랑은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 즉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볼 만하다. 인간 사이의 사랑은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비유적으로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은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갖지만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나타난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려지는 사랑은 증오가 대립 항으로 나타나며 그 사이에 원망과 노여움과, 질투와 슬픔, 기쁨, 행복 등 다양한 감정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드라마가 된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에로스는 어떤 신비로운 사랑에 대한 체험으로 그 사랑은 신으로 의인화되고 자아는 그 사랑과 동일시되며, 신비의 묘약처럼 그 사랑에 이끌린다. 그 사랑과 하나가 되고 싶은 황홀경에 빠지며 자아는 포기되거나 복종을 통한 합일의 느낌을 체험한다. 전적으로 이는 수동적인, 느낌의 상태이다. 사랑은 행위가 아닌 감각질(感覺質) 혹은 켈리어(qualia)의 상태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지나면 나와 사랑은 분리되어 내 안의 사랑은 외부로 드러나며 나를 갈망하게 하는 사랑의 대상인 너로 변형된다. 따라서 나는 수동적으로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 너를 욕망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대상을 소유하려는 탐욕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나와 너의 분리는 사랑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둘의 관계에 대한 주의력을 요구한다.

마르틴 부버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한다(부버2010:30). 따라서 사랑은 관계의 논리로 이해된다. 즉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며, 둘을 이어주는 논리이다. 기호적으로 보면, 사랑은 둘의 관계를 재현하는 논리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사랑의 하나 된 느낌, 즉 황홀경을 이상적으로 갈망하며 현실적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 됨의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데, 사랑의 자질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규정되지 않은 에너지와 같은 것이고 특정한 두 사람의 관계를 매개로 그러한 사랑의 자질이 구현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마주한 ‘너’를 충만한 주의력으로 대하는 태도는 사랑의 자질이 충만하게 표현되도록 추동한다.

이같이 두 사람이 갖는 태도, 혹은 두 사람만의 유일한 관계는 상이한 형태의 사랑을 재현한다. 가령, 세기적인 사랑이라 할 만한 몽테뉴와 라 보에시의 우정은 유일한 사랑의 형태를 띠면서도 보편적이다. 주목할 점은 에로스의 형태든지 아가페 형태든지,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나와 너의 실제적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나와 너의 관계가 에로스의 황홀경을 재현할지, 탐욕의 사랑을 재현할지, 아니면 진화하는 사랑을 재현할지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사랑이 재현되는 양상을 통해 나와 너의 관계를 논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아-내러티브가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즉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는 과정은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 이전에 나와 타자와의 대화를 전제로 한다. 부버에 따르면, 나(I)와 너(YOU) 그리고 그것(IT)이 만들어 내는 근원어는 나-너(Ich-Du)와 나-그것(Ich-Es)이다. 부버는 근원어를 “홀로 있는 낱말이 아니요 어울려 있는 낱말이다”라고 정의한다(부버 2010: 15) 여기서 부버는 중요한 지적을 하는 데 근원어가 둘이면 나도 두 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어의 개념을 퍼스의 현상학의 원형적

범주인 자아(I)와 타자(THOU) 그리고 대상(IT)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자아(I), 타자(THOU), 대상(IT)은 세 범주로 각각 가능성의 세계, 실체성의 세계, 일반성의 세계로 기술된다. 퍼스는 타자(THOU)는 대상(IT)을 전제하고, 대상(IT)은 자아(I)를 전제한다고 적는다(퍼스 W⁹1: xxix).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아(I)는 1의 성질로 느낌과 자질의 세계이고, 타자(THOU)는 2의 성질로 작용과 반작용,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재현하는 이중적 느낌의 세계이며, 마지막으로, 대상(IT)은 3의 성질로 두 느낌을 연결하는 중재 의식으로, 일반성의 세계를 재현한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혹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기호적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퍼스의 기호학적 범주를 통해 설명하자면 나는 사랑하는 주체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는 타자(YOU)인 내가 대상(IT)을 전제하고, 그러한 대상(IT)은 너와 내가 공유하는 일반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내가 너, 즉 너 안에 전제된 대상(IT)을 사랑한다는 말은 대상(IT)안에 전제된 자아, 즉 객관적인 자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둘을 연결하는 대상(IT)은 무엇인가? 퍼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느낌의 아이디어이다. 너에게서 발견된 그 아이디어는 또 다른 나 자신이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 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로 나와 너는 공간적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자아의식은 이중의 의식을 통한 무지와 오류로 이루어진다는 퍼스의 지적을 상기해 볼 때, 자아의식은 나와 너의 대화적 관계,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호의 대화적 관계 속에 놓일 때 가능하다. 즉 다른 점에서 같은 점(similarity-in-difference)을 찾는 과정이다. 이는 대화적 관계가 사고과정을 재현하는 것으로 “[...]사고 과정은 항상 대화, 즉 자기(ego)의 다른 단계들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그래서 대화적이 된다는 것은, 마치 체스 게임에서 그것의 물질로서 체스맨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사고의 물질인 기호로 구성된다”(퍼스 CP 46). 따라서 이러한 대화적 관계 속의 너는 나로부터 배제된 타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주의력과 의지를 가지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다.

IV. 대화적 상상력: 탐욕(greed)과 자애(self-love)의 내러티브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사랑은 세 유형의 자아-내러티브 형식으로 재현된다.

1. I am beloved.
2. I love you.
3. I give love to you.

제 1유형과 제 3유형이 현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의 사랑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제 2유형은 현실적 영역에서의 사랑을 재현한다. 즉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재현되는 사랑이다. 본 논문은 제 2 유형에 주목하고 너와 나의 유일한 사랑을 통해 자아가 발견되고 따라서 나와 세계가 변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살펴본다. 하지만 세 영역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9) W1 (Writings of C. S. Peirce: A Chronological Edition, Volume 1)는 퍼스의 필사본을 연대기 순으로 편집한 판본이다.

느낌은 연속성을 통해 확장되며 진화한다는 점에서 제 2 유형의 내러티브는 느낌의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비교 대상을 포함한다(EP 1: 섹션 23, the Law of Mind 참고). 따라서 대상의 내재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와의 긴장 속에 있게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재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며 따라서 둘은 보완적인 관계가 된다. 이 경우에 비교 관계가 온전하게 보완적이 되려면, 대화적 상상력(dialogic imagination)이 요구된다. 대화에서 자리바꿈의 교환(interchange)을 통한 포지셔닝은 평등한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평등한 관계에서 추출되는 상대적 가치는 두 개체가 전체에서 부분임을 인식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교환(interchange)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상호주체적 관계는 사회적 자아로서 개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공동체의 경험을 만든다(퍼스 CP 5.402 n.2 참고). 이러한 대화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제 2 유형의 자아-내러티브 형식은 사적 자아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제 3 유형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진화하는 자아의 진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제 3 유형의 사랑은 다음 장에서 논의 될 것이다.)

제 2 유형의 내러티브 형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의 진화 가능성은 자발적 행위 주체를 통해 수행된다. 즉 사회적 자아로서 나-너의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 퍼스의 진화론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 다윈주의처럼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생존의 진화 내러티브는 남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원리로 비대화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는 우연성을 기초하기 때문에 진화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현재에서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진단하는 과정은 목적론적인 진화론을 통하여 설명된다(퍼스 EP 1: 섹션 25, Evolutionary Love).

우연성에 기초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과 작용과 반작용의 기계론적 관점, 습관을 통한 행위적 관점의 진화론이 사랑의 논리에 기초한 퍼스의 형이상학적 진화론에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은 각 영역에서 진화의 형태가 시간, 공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연속성continuity 혹은 그리스 말로 외과적 의미에서 연속성의 수립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네키즘synechism(퍼스 CP 7.565; EP 2: 3)의 사유에서 연유한다.

한나 아렌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개념을 통해 탐욕(greed)과 자애(self-love)의 관계를 논한다(아렌트 2013). 아렌트는 논의를 통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애의 개념이 탐욕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다. 즉 이웃 사랑을 통한 자애의 개념이 탐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랑의 형태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에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아렌트의 주장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대화적 상상력과 자아-내러티브 형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논했던 마르틴 부버의 근원어 개념과 퍼스의 현상학적 범주를 적용하여 고찰한다. 결과적으로 내러티브의 대화적 형식을 통해 모델링 되는 자아의 진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1. 탐욕의 내러티브

앞서 보았듯이 자아-내러티브 형식에서 지표인 ‘내’가 대상인 나 자신(me)을 알아가는 과정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같은 자아 탐사의 과정에서 사랑, 즉 타자와의 관계를 재현하는 사랑의 개념은

중요한 매개가 된다. 즉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 요컨대, 사랑이라는 개념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이 필요하다. 즉 주체로서의 나(I)와 대상으로서의 너, 즉 나의 은유로서의 너이다. 현실에서 두 개인은 동등한 관계이지만 언어구조에 적용되면 주체와 객체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사랑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고 너는 그 행위의 객체가 된다. 즉 너는 사랑의 대상(IT)이 된다. 여기서 대문자 대상(IT)은 너라는 대상 뒤에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서 본질적인 아이디어(the Idea)이다. 이를 언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I love you(IT) 10)

그러므로 자아-내러티브의 수행을 통해 대상(IT)을 욕망하는 주체의 행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나와 너를 연결하며 공간적으로 확장된다. 이 때 대상을 향한 욕망이 아이디어를 인식하지(느끼지) 못한다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랑이 표출될 수 있다. 즉 대상(IT)이 재현된 물질적 재료인 기호전달체 자체(it)를 사랑하는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사랑의 대상인 ‘너’를 주의력과 함께 정서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통의 주의력을 통해서 너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나와 너는 근원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마르틴 부버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너 속에 ‘영원자 너’(부버 2010: 112)를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공통의 주의력으로 너와 내가 연결된다면 ‘영원자 너’는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나와 너의 관계는 언어구조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위치이지만 지표기호로서 개인인 나와 너는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다. 이런 측면에서 각 개인은 다른 점에서 같은 점을 볼 수 있는 비교(comparability)와 포함(inclusivity)의 원리를 통해서 대화적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탐욕의 사랑을 자애로 내재화하는 과정은 타자를 나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증오에서도 사랑스런 짝을 발견하려는 주의력과 정서적이며 자발적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퍼스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예를 들어 나에게 흥미로운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아이디어는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창조물이다....그 아이디어는 어린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해지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차가운 정의로 아이디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원에 꽃을 가꾸듯이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그것들을 자라게 한다. 요한의 복음서로부터 우리가 얻는 철학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이고 우주에 관해서는 우주가 여전히 정신이기에 생명을 가지며 따라서 심층적인 진화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랑은 증오 안에서 사랑스러움의 짝을 발견하고 점차적으로 그것에 온기를 주어 삶으로 가꾸며 사랑스럽게 만든다. (퍼스 CP 6.289)

결론적으로 너를 향한 탐욕의 내러티브는 너를 대상화(it)하여 물리적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재현

10) 대문자 대상(IT)은 마르틴 부버의 ‘영원자 너’의 개념과 유사하며, 기호학적으로 표현하면, 기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대상으로 하지만 알려지는, 너의 존재에서 본질적인 자질 혹은 아이디어(Idea)로서의 그것을 말한다. 한편 소문자로 표현되는 대상(it)은 물질적 재료로서의 기호전달체, 즉 기호 속에 이미 알려진 대상을 가리킨다.

될 수도 있고, 혹은 너에 대한 주의력과 정서적이며 자발적 행동을 통해 진정한 너의 본질인 대상(IT)을 사랑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가 자애(self-love)의 내러티브로 진화하는 사랑의 형태로, 너의 본질인 대상(IT)을 사랑하는 것은 대상(IT)속에 전제되어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둘의 정신은 연합되며 공간적으로 확장된다.

2. 자애(self-love)의 내러티브

탐욕의 내러티브에서 사랑이 대화 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랑은 너를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논리로 이러한 사랑은 공통의 주의력(joint attention)을 통한 대화적 상상력으로 두 개인을 연결한다. 타자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안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는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자아의 내러티브 프로그램 수행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랑하는 과정이며 이는 보편적 자아로 진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자아가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의 내러티브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진화한 대화적 자아는 자아의 내러티브에서 자발적 행위의 주체가 되며, 이는 나와 세계가 동시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국면이 된다. 진정한 대화 관계는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대상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교환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공통의 주의력(joint attention)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너 속에서 대상(IT)을 발견하고, 동시에 대상(IT)에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즉 너를 통해 나를 찾는 기호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 love you[IT(I)]

자아의 내러티브를 통해 형성된 자아는 자기통제가 가능한 합리적인 자아이다. 이 같은 자아는 내성(introspection)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타자를 통해 내재화된 보편적 자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내재화 과정은 타인을 욕망하는 내러티브 구조에서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타자에서 대상(IT)을 느낄 수 있고, 그 효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자아의 내러티브를 보여준다.

V. 내레이션: 사랑과 논리

이웃 사랑의 두 실존적 주체는 내러티브 형식을 기반으로 주체와 객체(대상) 사이에 자리바꿈의 교환(interchange)을 통하여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사랑의 주체와 객체는 작용과 반작용, 혹은 원인과 결과의 이원적 행위에 기반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주체가 갖는 근원적인 욕망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 사랑하는 행위와 받는 행위는 우연적으로, 혹은 매개가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과관계로 나타난다. 사랑의 주체 행위가 욕망의 실현이라면 객체는 그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관계는 자연적으로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탐욕(greed)의 서사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된다. 하지만 이러

한 이원적 행동이 대화 관계에 놓이게 될 때, 자극과 반응의 기계적인 이원성은 목적론적인 삼원적 행위로 변형된다(퍼스 CP 8.331). 즉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너와 내가 ‘의복의 교환’(퍼스 MS 318L:198-199; 이윤희 2013: 182에서 인용)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은 소유하는 행위가 아닌 주는 행위로 변형된다. 이는 탐욕의 내러티브가 자아의 내러티브로 진화하면서 자아는 타자로 인식되며 나를 넘어서는 삼원적 행동의 합리적 주체가 된다. 나와 너의 공통의 느낌인 아이디어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는 행위는 삼원적 행동의 한 예로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아닌 중재된 관계를 재현한다. 그러므로 행위의 주체는 객체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진화는 물론 우주론적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다. 진화적 사랑의 의미는 이러한 삼원적 행위인 주는 사랑, 즉 분배하는 사랑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일반성을 갖는 법칙으로 사랑의 논리, 즉 나누면서 배가 되는 아이디어의 확장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각 개인은 하나의 별로서 다른 별들과 경계 없이 별의 무리(a cluster of stars)가 되어 세계를 밝힌다. 이러한 자아의 모습은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타자 속에서 발견한 사랑의 찌크 내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고 공동체에서 꽃을 피우며 개인의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

사랑의 주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삼원적 관계로 표현된다.

I give love to you.

작용과 반작용의 인과 관계를 넘어서는 삼원적 행동은 나의 주는 행위가 너와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목적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나는 자기통제적 행위를 통해 합리적 주체가 된다. 합리적 주체인 서술자는 자아-내러티브 형식에 기반하여 나의 행위의 목적과 동기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보편적 자아로 진화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이 같은 삼원적 행위의 주체인 자아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주는 사랑으로, 정의의 공동체, 즉 한 개인(a person)이 태어나는 우주적인 진화에 참여한다. 이러한 정의는 나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경험으로, 공동체의 영역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자비(charity)로 표현되는 사랑이 될 것이다. 이렇듯 자아-내러티브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자아의 발견에서 미래적 자아로 성장, 진화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이는 나의 내적 동기와 나의 행위의 목적을 이해하며 나를 설명하는 과정으로서의 내레이션을 이룬다.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통해 나는 보편적 자아인 타자로서의 나를 인식하며 미래의 나를 규정하는 자기통제적 행위를 통해 진화한다. 이때의 사랑은 느끼는 사랑도 나를 욕망하게 하는 사랑도 아닌 사물과 사랑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사랑의 논리로, 이러한 사랑의 논리를 매개로 한 자기통제적 행위를 통해 보편적 자아로 진화한다. 즉 사랑의 법에 의해 움직이는 삼원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나는 우주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다. 퍼스의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증오 속에서 창조적 사랑의 찌크, 즉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력과 정서적, 자발적인 행동이 주어진다면, 그 아이디어는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VI. 결론: 이웃 사랑

지금까지 살펴 본 사랑 개념을 통해 본 자아-내러티브 형식은 사적 자아에서 대화적 자아로, 그리고 미래적 자아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너를 향한 주의력과 의지를 요구하는 대화적 관계의 이웃 사랑은 타자 속에서 ‘영원자 너’(IT)를 지각하는 일이며, 동시에 나 자신을 의식하는 일이다. 느끼는 사랑에서 타자를 욕망하는 사랑은 그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자아의 형태로 변형된다. 자아의 내러티브는 아이디어에 대한 창조적 사랑의 에너지가 이웃 사랑의 매개를 통하여 일관성을 갖는 미래적 자아로 성장하게 하는 진화적 사랑을 재현한다. 자아의 발견은 타자로서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며 주는 사랑, 즉 배분하는 사랑을 매개로 정신이 혼합되며 공동체의 개념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사랑은 각 층위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방법이자 법칙이다. 느낌의 사랑, 이웃 사랑, 주는 사랑의 과정 속에 자아와 우주의 진화가 함께 진행된다.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어 작동하는 정신의 법은 가까운 이웃과 연결되어 공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아이디어가 심화되는, 나와 타자의 대화가 나와 나 자신의 대화로 두 겹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신의 법을 토대로 한 사랑의 논리를 중재로 나의 개성(personality)이 형성되고 성장한다.

퍼스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화를 설명한다. 첫째, 생존을 목적으로 한 우연성에 기초하는 진화가 있으며, 둘째, 인과 관계의 기계적인 법칙을 통한 무목적성을 갖는 진화가 있고, 셋째, 습득된 습관이 유전되는 진화가 있다(퍼스 *EP* 1: 섹션 25, Evolutionary Love) 각각의 진화이론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옳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진화이론은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진화의 이유나 목적은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형이상학적 관점은 생물학적 관점을 포함한 진화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퍼스는 외부적 행위나 힘을 통한 진화가 아닌 내적인 에너지, 즉 사랑을 통한 목적론적 관점에서 진화를 설명한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퇴화적 진화론인 생물학적 관점과 기계론적 관점을 포용하는 진화론이다. 주는 사랑의 논리가 탐욕과 자애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은 나와 우주를 연결하는 에너지이자 나와 우주가 동시에 진화하는 논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포용하는 진화적 사랑의 논리는 역설적인 두 형태의 사랑인 탐욕과 자애를 연결하여 제 3의 법칙을 발견하게 한다. 충만한 주의력과 정서적이며 자발적 행동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타자에게서 사랑의 싹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한다면, 진화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연결하고 개인과 우주를 연결하는, 정의, 평등, 질서가 구현되는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퍼스의 시네키즘 개념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리스 말로 ‘외과적 수술에 의한 부분들의 연속성’이라는 의미로 우주의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속성을 표현한다(퍼스 *CP* 6.103; 6.169; 6.173; *EP* 2: 3). 이 같은 사유는 종교적, 과학적 요소를 포함하며, 인간 세미오시스, 즉 인간 외부의 환경세계와 인간 내부의 의미세계를 연결하는 기호로서의 인간을 탐구대상으로 하는 기호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랑의 형태에서 이원적 행동과 삼원적 행동을 살펴보았듯이 두 행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개체로서의 인간은 의미를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화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둘의 관계는 선과 악의 대비 관계, 의자에 앉음과 의자에 앉지 않음의 모순관계, 정상 시각자와 시각장애자의 충만과 결핍의 포함관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재현되지 않으면, 즉 매개하는 정신이 없으면 보편적, 미래적 자아는 형성되지 않는다. 기계스의 반지¹¹⁾처럼, 죽이고 죽이는 행위는 개별적인 행동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 마치 2과 2이 연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2과 2로 남아있는 것처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즉

연결되지 않으면 둘의 관계를 재현한 4 라는 제 3의 자질, 혹은 의미를 얻을 수 없다. 즉 살인자와 살해당한 사람의 관계는 살인 행위라는 보편적 사고로 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의 본질적 자질인 아이디어는 이웃 사랑을 통해 타자와 연결될 때에만 제 3의 보편적 자질인 미래적 자아로 재현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계스의 안 보이는 반지가 자아와 타자를 분리하는 매개라면, 부모의 주는 사랑은 자아와 타자를 연결하여 보편적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매체가 된다. 이러한 기호과정을 거치면서 나와 또 다른 나인 타자는 우주적 진화에 참여하게 된다. 나에게서 나온 나의 창조물인 아이디어는 타자와의 모순, 대조, 포함의 관계를 통해 연결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우주의 진화에 참여하는 또 다른 별로 태어난다.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우주라는 공간에서 각각의 별로서 존재하며, 경계가 없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별은 창조적 사랑을 매개로 진화하며 우주 전체를 비추는 별의 무리(a cluster of stars)가 된다.

참고문헌

- H.포터 애벗 저 • 우찬제 외 역. (2008).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 마르틴 부버 저 • 김천배 역. (2010).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 발터 벤야민 저 • 김영옥 외 역. (2009) 『일방통행로/사유이미지』. 길.
- 시몬 베유 저 • 윤진 역.(2008) 『중력과 은총』. 이제이북스.
- 제임스 리슈카 저 • 이윤희 역.(2013) 『퍼스 기호학의 이해』. 한국외대출판부.
- 이윤희. (2008). “퍼스(Peirce) 기호학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 『기호학연구 23』. 547-569.
- 조안나 스코트, 주디스 스타크 편저 • 서유경 역(2013).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한나 아렌트』. 텍스트. 2013.
- Lewis, T., F. Amini and R., Lannon (2000). *A General Theory of Love*. New York: Vintage Books.
- Baker, L. R.(2013). *Naturalism and the First-Person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de Tienne, A. (2002) “The Sign in Person” *Cognitio* (2).
- de Waal, C.(2014). *Peirce: a Guide for the Perplexed*. Bloomsbury.
- Helm, B. W.(2010). *Love, Friendship, & the Self: Intimacy, Identification, & the Social Nature of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 Hermans, H.J.M. and Thorsten G.(eds.)(2012) *Handbook of Dialogical Self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 Hinchiman, L. P. and Sandra K. H.(eds.)(2001). *Memory, Identity, Commun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ookway, C.(2002) *Truth, Rationality, and Pragmatism: Themes from Peirce*. Oxford: Clarendon Press.
- Irigaray, L.(2002). *The Way of Love*. Heidi Bostic and Stephen Pluháček (trans.) London; New York: Continuum.
- Liszka, J.J.(1996).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e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1) 『중력과 은총』, 시몬 베유 저 • 윤진 역(이제이북스. 2008). 228쪽

- Murphey M. G.(1993). *The Development of Peirce's Philosophy*. Indianapolis;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Peirce, C. S.(1931–58).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 Peirce*, 8 vols., eds. C. Hartshorne and P. Weiss (vols.1–6); A. W. Burks (vols.7–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P refers to *Collected Papers* followed by volume and paragraph number].
- _____.(1982). *Writings of Charles S. Peirce: A Chronological Edition* vol. 1(1857–1866). Max H. Fisch et al. (e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_____.(1992).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1.(1867–1893). N. Houser and C. Kloesel (ed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1998).*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2(1893–1913). the Peirce Edition Project.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Ricoeur, P.(1995). *Figuring the Sacred: Religion, Narrative, and Imagination*. Mark I. Wallace(ed.), David Pellauer(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_____.(1992). *Oneself as Another*. K. Blamey(tra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990.
- Savan, D.(1981). “Peirce’s Semiotic Theory of Emotion”, in Kenneth L.Ketner et al. (eds.) In *Proceedings of the Charles Peirce Bicentennial International Congress*. Lubbock: Texas Tech Press, 319–33.